

신산업 국가예산 대거 확보 '최우수 기관' 선정 쾌거

익산시, 오산 신지·영만 국대도 등 도로 확충... 교통 중심도시 도약

익산시가 신산업과 SOC 분야 내년도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시흥팔달 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발전에 한층 더 속도가 붙게 됐다.

27일 시는 내년도 경제·SOC 분야 국가예산으로 2천17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확보 예산의 24%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확충 예산 반영으로 익산을 교통 중심도시로 확고히 자리잡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 신지와 영만을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확충 예산 2098천만원(총 사업비 1,888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서수 평장 간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3182억원(총 사업비 3,173억원)이 확보됐다.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황등면 신기리와 금마면 동고동리를 잇는 서수 평장 간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와 맞물려 편리한 교통망 확충은 물론 기업 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지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이끌 신산업 분야 예산을 확보했다.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 20억원(총 사업비 89억원)이 새롭게 반영돼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센터와 함께 지역의 신산업 핵심 콘텐츠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XR 산업은 홀로그램과 가상(VR), 증강(AR)현실 등을 포함하는 기술로 미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 분야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청년플' 전국 12개 청년센터... 높은 평가

군산시가 복합적 청년서비스 공간으로 운영하는 '청년플'이 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센터 운영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특성에 적합한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선정해 전국 청년센터 중 12개소를 선정 개소당 1억 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평가는 선정된 12개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연간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로 서면·면접 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1달에 걸쳐 진행됐다.

군산시 청년센터·창업센터(청년플)은 청년들을 위한 차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청년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이 모범이 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평가로 전국의 대표 청년센터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세대 생태계 조성 및 청년 문화와 청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군산시가 청년 희망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플의 대표적인 운영 프로그램은 ▲청년희망멘토링 프로젝트, ▲직무탐색교육 워크숍, ▲생활경제 초린이 탈출기, ▲너도나도 역량개발 ▲군산청년창업캠퍼스 ▲원스톱 창업 컨설팅 등으로 2,4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청년센터·창업센터(청년플) 청년지원사업부(☎063-471-155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동파 상수도 계량기 무료 교체

군산시가 겨울철 한파로 파손된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을 무상 지원한다.

그동안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될 경우 수용기에게 관리 책임을 이유로 교체 비용을 부담케 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부담을 시에서 부담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상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6년이상 노후된 수도계량기뿐만 아니라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까지 모두를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검침 시 계량기 보존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고 동절기 동안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시 시에서 지정한 12개 상수도 대행업체를 통해 신속히 교체할 예정이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보호를 내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존재로 밀폐해야 한다. /군산=한경봉기자

익산시, 불법주정차 50분 단속유예 연장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일일주차 30분에서 50분으로 한시적 12월 말까지만 단속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단계 완화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08:00~09:00/17:00~19:00)는 현행대로 30분 단속유예 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흐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는 즉시단속으로 집중 관리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횡단보도, 보도(인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 신고제로 24시간 즉시 단속됩니다. /익산=이득훈 기자

정부 지자체 복지평가 '3관왕'

익산시, 지사보계획 평가 등... 6년 연속 전국 '우수'

익산시가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정부로부터 복지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복지사업 평가 3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며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6년 연속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분야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기초생활 보장부부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과 총3천7백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익산시는 2016년부터 6년 연속 수상의 저력을 과시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선보여 지자체들의 복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발 빠르게 민관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신속한 대응 전략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지역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발 및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민간기관 중심의 협력복지로 이룩한 돌봄서비스 체계구축 △지역특성에 기반 한 사회보장영역 확대 사업(장년정책 등) 등 54개 사업을 계획 수립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민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매년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타 지자체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9,716가구의 신규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4,129가구에 한시 생활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음.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로 복지급여의 누수를 예방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대중교통서비스 '전북 우수' 선정

익산지역 시내버스들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도내에서 우수한 것으로 인정 받았다.

익산시 운수업체인 (주)신흥여객(대표 김용원)과 (주)익산여객(대표 강상선)이 2021년 전라북도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 14개 시·군 23개 시외시내·농어촌버스 등 버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평가, 서비스 평가, 우수사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 이에 따라 신흥여객은 시내버스 분야 서비스평가 1위, 경영평가에서 2위, 우수사례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해 종합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익산여객은 우수사례 부분에서 1위, 서비스평가 3

위, 경영평가에서 3위로 종합순위 3위로 선정됐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2개업체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우수한 결과로 어려운 경영환경 및 근로조건에서 이루어 낸 쾌거라 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분야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운수업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시민편의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득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한국지방자치 대상' 수상

강임준 군산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대상'에서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대상은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가 그해 지역 발전에 가장 큰 공로가 인정되는 광역·기초단체장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강 시장은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중소유류공공도매물류센터 건립 추진

등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 전기차 중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군산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군산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체널을 통해 시민과의 열린 소통행정으로 시민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지속 개발 교육·문화·예술의 생활 속 저변 확대와 활성화 촉진한 맞춤형 복지 정책 추진,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 관리 공공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다.

강 시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에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희망이 있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대야교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군산시 대야교회는 대야교회(담임목사 최규연)가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야교회는 해마다 이 시기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수시로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과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대야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최규연 담임목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계속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일성 대야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야교회에서 귀한 성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